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실태조사

○조사목적

-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환경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조사대상

- 대전지역 취약계층 노동자
소규모사업장,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 조사기간

- 2020년 3월 25일부터 - 3월 29일까지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결과

총 337명 응답 유효응답자 330명

소규모사업장은 마을의 3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이 대상임.

(병원, 어린이집, 마트 등)

특수고용직은 택배, 배달, 프리랜서, 화장품방문판매, 정수기, 보험, 등

무기계약직은 운전원, 학교비정규직 등

■ 코로나 19로 인한 노동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긴급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330명중 직업은 서비스(마트등), 사무직이 가장 많으며, 교육강사(교육 등 강사), 영업(화장품, 보험 등 방문판매 등), 시설청소, 운전, 콜센터, 병원(간호사,조무사,임상병리사등), 경비, 기타(대리운전, 일용노동자 등), 배달택배, 숙박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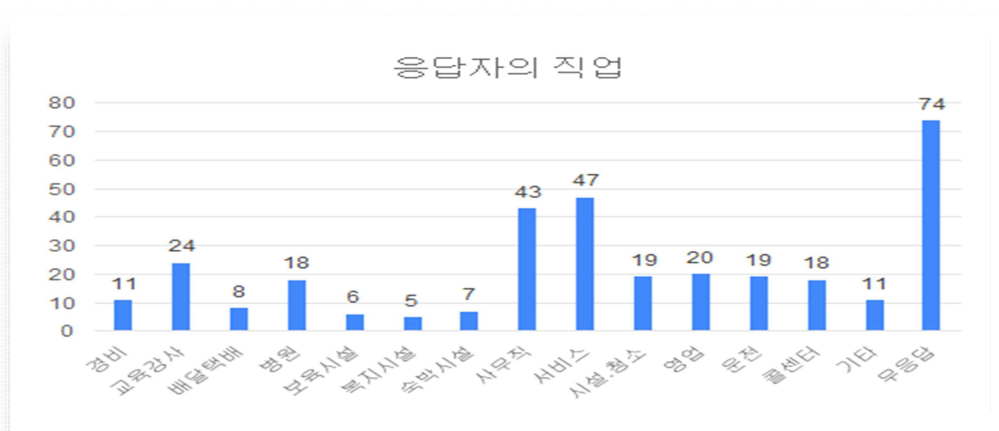


그림 1 응답자 직업별 분류

■ 전체 응답자의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특수고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기타 순으로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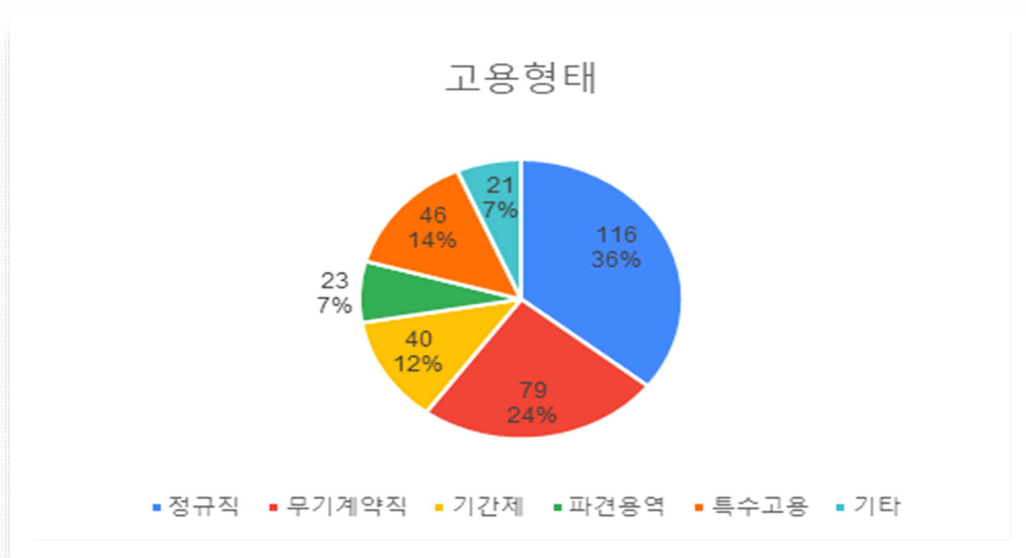


그림 2 응답자 고용형태

■ 응답자들의 월수입규모는 150-2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아,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들로 나타남.

월수입규모	응답자(명)	백분율(%)
100만원미만	44	13
100-150만원미만	26	8
150-200만원미만	138	42
200-250만원미만	73	22
250-300만원미만	22	7
300-350만원미만	10	3
350만원이상	17	5

표 1 응답자의 월평균 수입

■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들의 월평균 수입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줄었다고 응답한 노동자 134명임. 고용형태별로는 특수고용직이 가장 많으며, 정규직, 무기계약직 순으로 나타남. 반면 파견·용역은 수입이 감소된 노동자는 없음. 직업별로는 마트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경비, 일부의 사무직 등이 임금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월평균 급여에 따른 수입감소를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수입감소가 많아짐을 보이고 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일수록 수입이 감소되어 저소득 노동자일수록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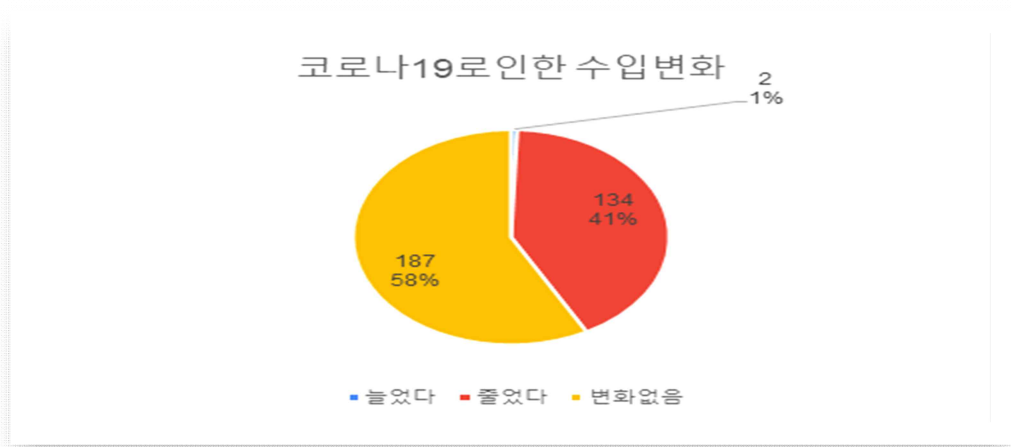


그림 3 코로나19로 인한 수입의 변화

고용형태	응답자(명)	백분율(%)	응답자의 직업
정규직	36	27	숙박, 간호조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등
무기계약직	27	20	운전원, 특수교육, 강사
기간제	15	11	사회복지사, 다문화가정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음악강사등
특수고용	41	31	프리랜서, 화장품, 배송기사, 연극배우
기타	15	11	식당알바, 일용근로자

표 2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된 응답자의 직업

월수입규모	응답자(명)	줄었다	백분율(%)
100만원미만	44	35	79.5
100-150만원미만	26	14	53.8
150-200만원미만	138	13	9.4
200-250만원미만	73	13	18.1
250-300만원미만	22	8	36.4
300-350만원미만	10	3	30
350만원이상	17	2	11.8

표 3 월수입규모별 수입감소 응답자

■ 코로나 19로 인한 수입감소율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감소율은 4-50% 감소가 가장 높고, 100%감소도 14명(교육강사, 프리랜서등)이 되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수입감소가 50%이상 수입이 감소된 직종별로는 특수고용직이 23명(영업직, 교육강사, 프리랜서), 정규직 8명, 기간제 5명, 기타 6명 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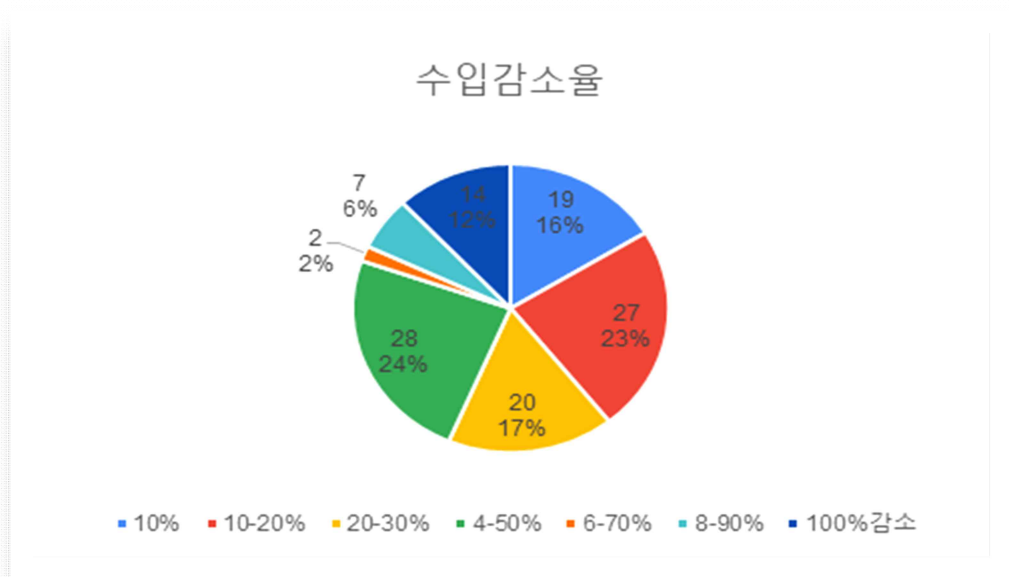


그림 4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율

■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간이 변화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총 116명으로, 늘었다는 노동자는 9명, 줄었다는 노동자는 107명으로 나타남. 하지만 늘었다는 9명중 5명이 택배노동자로 노동시간이 증가한 반면에 임금 상승은 2명만이 증가했다고 대답하고 나머지는 변화없음으로 응답함.

노동시간변화	응답자(명)	백분율(%)
늘었다	9	3
줄었다	107	32
변화없음	214	65

표 4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간의 변화

■ 코로나 19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74명이 새로운 업무가 증가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정 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코로나 19로 새로운 업무추가	응답자(명)	백분율(%)
그렇다	74	23
아니다	243	77

표 5 새로운 업무추가여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휴가사용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무급휴가중인 노동자가 22명 이었으며, 유급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중 개인적인 이유와 회사의 권유로 사용한 노동자 비율이 반반으로 나타남.

휴가사용	응답자(명)	사유
무급휴가	22	회사사정
유급휴가	19	개인8명, 회사9명
휴업	2	

표 6 코로나19로 인한 휴가사용여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인력 감원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13명이 동료들이 감원되었다고 응답함. 중소규모 병원과 어린이집 등이 해당된다고 응답함.

인원	응답자(명)	응답자 직업
감원	13	간호조무사, 어린이집, 사회복지사, 사무직 등
충원	1	콜센터

표 7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감원여부

■ 개인위생용품지원과 관련한 질문에는 일부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지원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14%가 됨. 직업별로는 사무직, 특수고용직 뿐만아니라,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반드시 개인위생용품을 사용해야 되는 직종들도 전혀 지원이 안되는 현상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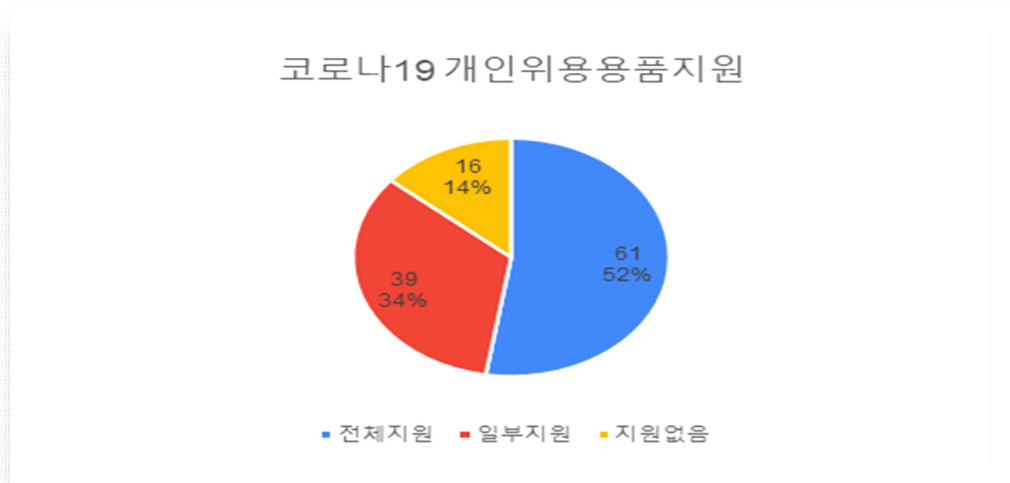


그림 5 코로나19 개인위생용품 지원여부

■ 응답자의 가구구성은 4인가족이 가장 많으며 3인가구, 2인가구 순으로 나타남. 가구별 소득감소를 보면 4인가구와 5인이상 가구에서 과반을 상이하는 가구 소득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함.

가구	응답자(명)	가구소득감소(명)
1인	46	21
2인	53	29
3인	62	30
4인	136	76
5인이상	27	15

표 8 가구별 응답자와 가구소득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의 변화를 살펴보았더니, 늘었다는 4명이며, 줄었다는 172명으로 나타남. 가구소득이 줄은 172명중 83명은 나의 소득의 변화가 없다는 응답자로 가구원중 소득감소로 인해 전체 가구소득이 감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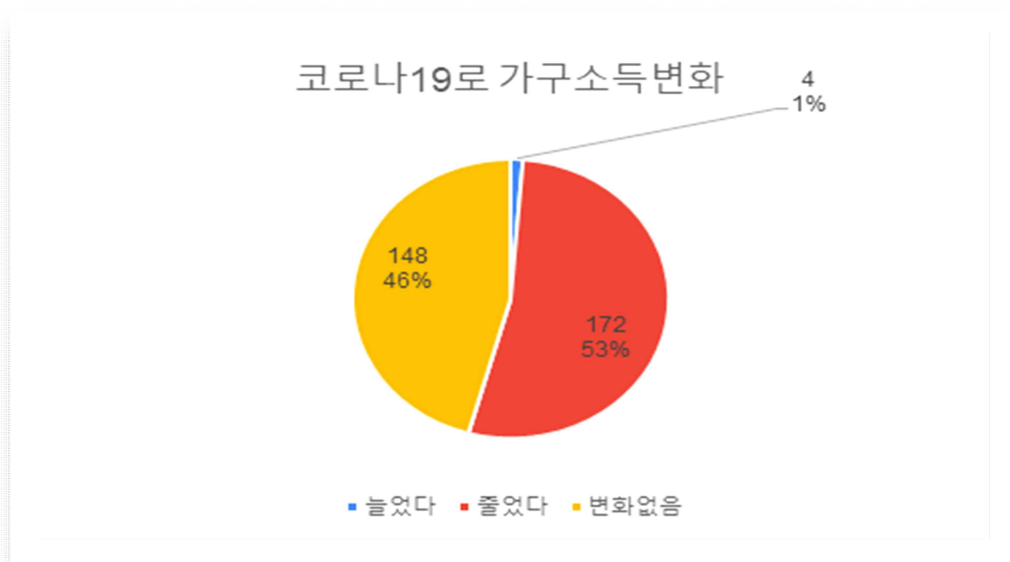


그림 6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의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 응답자중 감소율을 보면 20-30%,40-50%의 가구소득 감소가 많으며, 80%이상도 4명인데, 전혀 가구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노동자도 1명 있었음.

감소율	10%이하	20-30%	40-50%	60-70%	80%이상
응답자(명)	8	22	19	3	4

표 9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율

■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응답자 85%의 노동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273명 중 재난기본소득 액수로 1인 10만원이 적당하다는 노동자가 15명, 20만원은 12명, 30만원은 19명, 50만원은 57명이며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노동자도 74명이 됨. 나머지는 가구당, 월급여에 따른 %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옴.

재난기본소득	응답자(명)	백분율(%)
찬성	273	85
반대	49	15

표 10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의견

○ 분석 및 제언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인 소득감소는 41%, 가구소득의 감소는 53%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 소득별로 보면, 저소득층일 수록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0만원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들은 약 79.5%, 100-150만원 사이 노동자들은 53.8%가 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하고 있어, 저소득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소규모사업장의 매출급감으로 인한 무급휴직 등의 피해가 보이며, 특수고용 노동자들(대전 62,922명, 정홍준연구,2020년)의 경우 피해는 더 심각하다. 화장품, 보험 등 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교육 강사 등 프리랜서 일하는 노동자, 일용노동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 노동자들에게 대한 대전광역시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수입 감소로 가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국가차원의 소득하위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소득감소로 인한, 불안한 가구들의 상황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수입감소로 인한 가구들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익감소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대량 실업을 막을 수 있도록 고용유지를 위한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 특수고용 노동자 대부분이 실업급여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었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이 23%나 되었으며, 개인위생용품 지급의 경우 14%의 노동자들에게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고, 일부지원은 34% 되고 있다. 노동환경의 변화와 추가된 업무로 인한 노동강도 악화 등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

■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찬성이 8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고용악화, 고용불안 등에 대한 기본소득 등 본질적인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